

'결혼' 윤보미, 1년 6개월만 '나솔사계' 떠난다

등록 2026.05.16 15:36:31



[서울=뉴시스] 윤보미. (사진 = 위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가 MC로 활약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SBS Plus·ENA '나는 솔로(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 측은 16일 "윤보미가 '솔로민박-한 번 더 특집'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하차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보미는 2024년 11월 조현아의 후임으로 '나솔사계' MC로 합류했다. 약 1년 6개월간 활약한 끝에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됐다.

한편 윤보미는 이날 9년 열애 끝에 블랙아이드필승 라도와 결혼한다.

이날 결혼식 사회는 코미디언 김기리가 맡았다. 에이핑크를 비롯 스테이씨(STAYC), 언차일드가 축하를 부른다.

윤보미는 결혼 후에도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 예능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간다. 에이핑크 중 유부녀가 되는 멤버는 탈퇴한 홍 유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보미와 라도는 2017년부터 교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도가 에이핑크의 '마이 마이'(2011), '내가 설렘 수 있게'(2016), '1도 없어(2018)' 등을 작업하며 그녀와 연인이 됐다.

라도는 에이핑크 노래 외에 씨스타, 트와이스, 청하 등의 히트곡을 썼다. 하이업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스테이씨를 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